

오에스비[オー・エス・ピー] 측정기술로 환경을 살린다

1) 기업개요

- 소재지 : 埼玉県狭山市東三ツ木2-14
- 분 야 : 환경기기
- U R L : <http://www.osp-inc.co.jp>

2) 기업 소개

□ 연구원에서 벤처 경영자로 변신

- 이 회사는 휘발성 유기물질(VOC¹⁾)의 측정기기 개발업체임
 - 이 측정기기는 톨루엔,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(有機溶劑)²⁾를 쉽고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
 - 공장에서 대기로 배출되는 유해가스나 공장 폐수에 포함된 미량의 VOC도 검출이 가능함
 - 관련 공장이나 행정기관 그리고 연구기관 등으로부터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
 - 2006년에는 제18회 중소기업 우수기술 신제품상을 수상함

1) VOC : 휘발성 물질들이 유기적으로 뭉쳐진 상태를 말하며 인간 체내의 간장, 심장, 피부 등에 흡착되어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기 쉬움
2) 유기용제 : 시너·솔벤트 등 어떤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액체상태의 유기화학물질로 휘발성이 강한 것이 특징인데, 공기 중에 유해가스의 형태로 존재하기도 함

- 이 회사는 1998년 설립된 벤처기업으로 독일의 종합화학 회사인 헥키스토(현재 세라니즈)그룹의 연구자였던 야마모토 사장이 회사의 유기물 센서 기술 노하우를 라이선스 계약 후 제품화를 위해 창업했음
- VOC에 대한 대책은 유럽이 일본보다 먼저 사회 문제화하고 있었던 만큼 VOC 측정기술을 이용한 사업은 앞으로 일본에서도 유망한 환경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함
- 이 회사 제품의 핵심 기술은 VOC를 흡수·방출하는 고분자 박막 소자와 간섭 증폭 반사법을 응용한 광학식 센싱 기술을 융합한 것임

□ 창업 지원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

- 야마모토 사장은 ‘자신은 오랫동안 연구소 안에 있던 사람으로 당초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’ 고 할 만큼 처음 시작은 어려운 도전이었음
- 그런 만큼 관련기관으로부터의 도움과 조언이 없었다면 창업 자체가 힘들었을 것으로 회상하고 있음
- 특히 삼화벤처육성기금,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, 사이타마(埼玉)현 등의 창업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했음
- 연구개발과 시험제작을 거듭한 결과 2006년 하반기 본격적인 생산에 도달할 수 있었으며, 당시 일본정부의 VOC 배출규제 강화도 순풍이 되어 주었다고 함
- VOC 측정기는 주문생산 타입 설치 모델과 양산 타입 핸드 모델이 있음
- 검출 속도를 빠르게 해서 검출 데이터의 재현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VOC의 저농도에서 고농도까지 넓은 범위의 검출을 가능하게 했음

- 설치 모델은 VOC 처리 장치 제조업체에 주로 납품하고 있으며, 반면 핸디 모델은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음
- 2007년 4월에는 연구, 개발, 생산에 이르는 일괄처리가 가능한 공장을 설립했음
- 한편 이 회사는 독자적인 기술로 유종판별센서(석유 밀도계)를 개발했음
 - 이 제품은 광섬유를 이용하여 휘발유, 경유, 등유 등의 밀도차이를 감지하고 기름의 종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음
 - 특히 주유소의 혼유 방지, 굴착기 등 건설 기계에 연료 주입 실수 방지(2006년 10월부터 일본에서는 신형 건설기기 연료는 경유만 사용)에 도움이 됨
 - 이러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여 센서기술 분야에서 오에스비가 가지게 될 시장의 비중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, 기대하고 있음

□ 성공 요인 및 향후 전망

- 창업 10년차인 지난 2008년에 최대 목표였던 라이선스 기술의 제품화에 성공하여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했음
- 중장기적으로 연간 매출액도 현재의 약 2배인 5억 엔을 목표로 하고 있음
- 지명도는 낮지만 VOC측정기 등의 센서기술 분야에서 상대적 우위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 활용과 시장변화에 대한 치밀한 전략만 구축된다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전망됨